

나주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로 만든다

■ 나주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 기본 구상도

'나비(羅飛)센터 준비' 개관... 도시재생사업 박차

옛 나주잠사→창작박물관, 나주정미소→코아박물관
신속주 한글거리·임제 황진이 거리 등 고살길 만들고
어울림장터·도심정원 축제 등 시민 참여 관광객 유치

영산강 문화권의 모태이자 2000년 역사의 도시 나주.

나주시는 1967년 25만여명의 인구를 자랑했지만 2004년 10만명선이 무너지며 쇠퇴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되며 다시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나주시가 원도심내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도시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문화 재생사업 전담 '나비센터' = 나주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8일 '나비(羅飛)센터(NAJU ART VISION CENTER) 준비' 개관으로 본격화됐다. 나주시 금계동 옛 중앙교회 건물에 문을 연 나비센터는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 시설의 문화자원화사업' 대상에 선정된 옛 나주잠사와 그 일원에 대한 도시문화재생사업을 전담한다.

시는 부지면적 4637㎡, 건축면적 1574㎡의 옛 나주잠사에 총 39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예술 창작 발전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 29일 1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의 공모사업 도전은 2010년 도시재생 테스트 베드,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이어 3번째다.

시는 지난 2007년 구도심 활성화사업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국토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공모사업에 참여했지만 탈락했다. 이후 시는 나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활성화 계획을 수립

하고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재도전했지만 또다시 탈락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 기본 구상은 그동안 시가 추진한 도시재생 관련 정책과 중앙부처 협업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투자 사업을 종합해 크게 ▲이야기가 있는 고살길 ▲근대 문화의 거리 ▲조선의 거리 ▲행복한 삶터 만들기 ▲정미소 재창조 등으로 나뉜다.

시는 1차적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나주읍성권(0.45㎢)을 타깃으로 설정했다. 읍성권에 산재해 있는 4대 문(門)과 금성관, 목사내아, 고살길 등 수많은 이야기가 묻어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고풍 등 먹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지역 재생의 전략목표로 세웠다.

나주 원도심내 금성관과 향교 주변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8건, 시·도지정 문화재 19건이 산재해 있어 스토리를 통한 고살길로 연결해 원도심 전역을 관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나주읍성을 오는 202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잠정 등재시켜 한류관광의 전진 기지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역량 강화 주력=시는 마중물 사업에 ▲근대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핵심거점 활용사업 43억원 ▲고살길 복원·영산강 자전거길 연계 등 읍성권 연계망 정비사업 18억원 ▲구석구석 마을 생태 박물관 활동사업 17억원 ▲행복한 삶터 만들기 사업 22억원을 배정했다.

시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도시재생 대학을 비롯해 문화관광형 상인대학, 나주읍성 답사프로그램, 선진지 벤치마킹,

시민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선진지 벤치마킹 일환으로 지난 3월 원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의 기회를 운미숙씨를 초청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주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졌다.

또 이달부터 동네 목수학교, 동네 원예학교, 주민참여 스토리가 있는 문패만들기, 야생차 체험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안서가 선정돼 예산을 확보하면 보행 관광로로 3721㎡의 골목길을 흙돌담으로 정비해 '신속주 한글거리', '백호 임제 황진이 거리', '장화왕후 거리' 등 천년역사의 스토리가 담긴 고살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나주농업의 상징적 근대 건축물인 성북동 나주 정미소(2748㎡)를 핵심거점으로 개발한다. 총사업비 40억원(국비 15억, 지방비 15억, 민간투자 10억)을 들여 정미소 체험관과 쌀박물관, 전통카페, 로컬푸드 직매장, 세미나실 등을 갖춘 '코아 박물관'으로 재창조할 예정이다.

박물관 활동사업으로 ▲주말에는 '어울림' 문화장터, ▲봄철 도심축제로 '도심정원 축제', ▲가을철 축제로 '삼일 난장' 등을 펼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도심정원 축제를 위해 금성관과 목사내아 일대, 서성벽 일대, 나주전번 등에 나주를 상징하는 꽃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읍성내에 한옥마을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다.

나주시 금남동 주민협의체는 나주 잠사 사업이 문공부 공모에 선정되자 '도시재생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시민참여 서성벽 흙돌담 쌓기를 실시했다. 또 영산강 지역에 '영산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결성되고 올해 초 '영산포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으로 1차 선정됐다.

/나주=손영철·정철현 기자 yacson@



나주향교



고살길



옛 나주잠사



서성문

목사고을시장 토요일문화장터 관광객 북적

문화관광형 시장인 '나주 목사고을시장'이 본격 운영되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나주 목사고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조진상)은 지난 25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일문화장터와 토요일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한다.

토요일문화장터는 오는 9일 오후 2~5시

난타·댄스 등 문화공연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행사로 열린다.

또 토요일문화아시장은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저녁 6~9시) 총 10회 열린다. 작은 음악콘서트와 영화 상영, 셀프 야외 바비큐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5일장 문화장터는 목사고을시장 장날인 4일과 9일에 맞춰 오는 19일과 6월 19일(정오~오후 1시)에 열린다.

이 가운데 특색있고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토요일 문화아시장에서 진행되는 '셀프 야외 바비큐파티'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통시장 안에서 추진된 '셀프 야외 바비큐' 프로그램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서둘러 사전 예약(당일 방문 접수 가능)을 해야 한다.

"안국현 나주목사고을시장 상인회장은 "나주 목사고을시장 각 점포 상인들이 토요일문화장터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풍년 기원 '시농식'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 혁신도시 공원텃밭에서 시농식(始農式)을 가졌다. <사진>

시농식에는 공공기관 이전직원과 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년을 기원하는 지신밟기와 고전제 난타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가족단위로 참석한 분양자들은 고추, 토마토, 가지 등의 채소 모종과 씨앗을 심었다. 시는 분양자에게 고추, 토마토, 가지 모종과 팻말 등을 제공했고, 작물재배법

등 다양한 현장 기술지도도 실시했다.

공원텃밭은 3개소 3300㎡(10㎡ 내외 265 구획)에 조성됐으며, 공공기관 이전직원과 입주민, 시민에게 지난 3월 분양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 공동체 완성을 위해 혁신도시에 공원텃밭을 조성하게 됐다"면서 "텃밭이 공공기관 이전직원과



지역 주민사이에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창사 63주년

군민과 함께 열린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작은 소리에 도귀 기울이는

고흥군의의회

Goheung County Council

<http://www.igoheung.com>